

김구·안중근 등 독립운동가 15명… 광화문광장 영상 공개



일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인 4월 11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 공개된다.

흑백사진이 복원된 독립운동가는 김구, 김좌진, 베델, 송진우, 안중근, 안창호, 윤동주, 윤봉길, 유관순, 이승만, 이회영, 조소앙, 최재형, 한용운, 헐버트 등 15명이다.

사진 복원은 AI 얼굴 복원기술(GFP-GAN) 및 안면 복원 기술을 활용해 고해상도 색채 사진으로 복원한 뒤 영상으로 제작됐다. 6·25 참전용사 흑백사진 복원을 진행하고 있는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와 인공지능학과 학생들이 복원작업에 참여했다.

국가보훈처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등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흑백사진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컬러사진으로 복원한 영상이 2월 28